

[기 고] 조계종 제2교구 신도회장 민학기

30년 후 불교 어찌 될까 사부대중 지혜 결집 절실

최근 불교계 신용협동조합이 자본금 7000만원으로 출발한 지 20년 만에 수신고 500억원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뤘다 소식을 접했다. 이에 감탄한 순간 이웃 종교인 8000여 명이 자본금 1조 5000억원의 종교은행 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들이 1조 5000억원의 자본금으로 수백억원 수신고를 올릴 것을 생각하면 참담하다.

‘일체개공(一切皆空)’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야 1원이든, 100억원이든, 100조원이든 모두가 공(空)한 것이니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겠지만, 중생들이 그 자기의 능력에 갈대처럼 흔들려 부처님의 가르침을 뒷받침으로 제쳐 놓고 허상 같은 숫자에 빠져 들어갈 것 아닌가.

끝내는 세속의 질서가 그 외도들의 의도대로 규정되어 버리는 날이 와도 우리가 처자식을 둘러싼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고 마음 하나 부여잡고 부처님 가르침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리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후손들 중 범람에 앉아계신 부처님을 찾아 바른 마음을 참구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이가 과연 몇이나 될지 솔직히 두렵다.

장기간 동안 다른 종교와 부대끼면서 잘못된 포교정책을 방치하면 그 결과는 중단 소멸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무슨 행동을 하든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수행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방심한다면, 30년 후에도 부처님이 지금처럼 금색 옷을 입고 단아한 법당에 앉아 계시 수 있을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세상에 갓 태어난 아이들을 어떤 종교가 먼저 보듬어주느냐. 이것으로 포교의 절반은 결정된다. 그래서 불교계에서도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 등 초등교육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절실하다. 또, 왕성한 활동기간에도 건강, 입시, 사업, 가정화목 등을 위한 개인적인 기도는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회지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수다를 떨고, 운동과 여행 등의 취미활동,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과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때로는 여행업, 숙박시설을 운영하여 그러한 시설을 찾아오는 중생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할 때 사찰에도 남성, 어린이, 외국인, 인텔리,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대중들로 북적거릴 수 있을 것이다.

대중들은 어려울 때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을 따라간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살피는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종교를 선택한다. 극락인지, 천당인지, 지옥인지 알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어떤 종교가 간절하게 사후세계의 구원을 기도해 주느냐. 이것이 유족들의 종교를 결정하기 때문에 불교계에서도 요양병원 요양원 상호회 남골당과 같은 복지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우선 교구본사를 비롯한 대규모 사찰마다 인근 대도시에서 포교·보육·교육·노인복지시설을 각기 1곳 이상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이러한 시설을 스님의 개인적인 의사에 맡겨 개인적인 역량에 맡기는 것보다는 교구본사와 말사라는 종단체제가 뒷받침하여 조직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사부대중으로 구성된 사찰을 사부대중이 함께 운영함으로써 모든 불자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가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찬란한 불교정토에서 살 수 있는 날을 두손 모아 기다려 본다.



수익사업팀·종책연구소 신설

조계종 중무원 직제 개편...2년차 종책 수행에 초점

조계종 중무원(원장 자승)이 승가 복지 등 중단 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팀과 조계종단 중흥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 마련을 위해 종책연구소 신설한다.

조계종은 12월 1일 제7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일반직 중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앞선 11월 24일 종무회의에서는 수익사업팀, 종책연구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직제개편이 통과됐다.

조계종은 2011년 주요 핵심과제로 승가복지를 비롯해 종책연구소 설립, 종단 수익사업을 위한 기반마련, 종교평화 실천과 화쟁위원회 활동 등을 설정했다.

종책연구소는 불교적 세계관과 가치로 생명과 환경, 인권 등 사회문제에 대한 해석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종단의 중단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종책의 조사연구를 담당한다.

사업팀은 승려노후복지와 승가교육 개혁 등 늘어난 중단 지출을 충당하는 등 중단 재정구조 합리화를 위해 불교적 수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신설됐다. 사업팀은 최근 조계종에 대한민국제향근민회와 협약을 맺고 진행 중인 상호회 가입 캠페인 등을 총괄·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부서별 팀 통합과 신설도 발표했다. 재무부가 재무팀과 시설관리팀으로 변경된 것을 비롯해 법무전문위원실은 총무부에 통합됐다. 기획실 감사국은 감사팀으로 명칭 변경됐다. 포교원도 어린이청소년팀을 해체하고 전법지원팀으로 새로 꾸렸다.



유네스코 사무부총장 자승 스님(왼쪽)은 12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엔기다 유네스코 사무부총장의 예방을 받고 “2013년 세계 종교지도자 포럼을 추진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많은 도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엔기다 부총장은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비와 불교의 이상이 같다. 2013년 포럼 진행에도 유네스코의 지원을 기대하겠다”고 답했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환 기자

주요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며 “핵심사업을 비롯한 종책의 안정적·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주요 인력을 재배치하고 조직을 재구성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승적 논란 언제까지

은혜사·백양사 재선거

조계종 스님들의 승적 논란이 중앙종회의원 재선거까지 이어지게 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5대 중앙종회의원 후보자였던 법일·만당·원경 스님에 대한 ‘자격 없음’ 판정을 뒤집고 ‘자격 있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은혜사·백양사는 종회의원 선거가 재 실시되고, 2인이 후보등록 했던 송광사는 원경 스님이 무투표로 당선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는 12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35차 회의를 열고 법일·만당·원경 스님의 중앙종회의원 선거 소청 건을 다룬 뒤 이같이 결정했다.

중앙선거위는 안건 심의에 앞서 세 스님의 선거소청 자격 여부를 살핀 결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입법 미비 등이 지적됐지만 “후보자 자격 박탈이 잘못됐음을 전제해 선거 소청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날 중앙선거위원회 결정에 따라 재선거가 결정된 은혜사·백양사에서는 중앙종회의원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앞선 11월 29일 조계종 범규위원회(위원장 성천)는 전제회의를 열고 은혜사 중앙종회의원 후보자였던 법일 스님의 수계사랑을 승적부와 달리 통보한 총무부 회신이 무효라는 판결을 했다.

조동섭 기자

동국대 총장 경쟁률 7:1

총추위, 8일 최종 후보자 3명 이사회에 추천



동국대 총장추천위원회(위원장 학담)는 12월 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8일 총장 최종후보자 투표를 갖고 총장 후보 7명 가운데 3명을 주력 이사회에 추천하기로 했다. 조동섭 기자

태고종 종회 파행... 내년 예산 57억 통과

천태종 상원 조사 탄신 100주년 성역화
진각종 진각문화전승원 회향 학술대회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영우)는 12월 3일 제104회 정기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종헌종법 개정안 등의 안건을 채택했다.

사업계획안은 기간조직 정비, 태고문화축전, 전법사 전문교육원 설립 등을 담고 있고 예산은 57억 4530만 원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중앙종회와 중앙사정원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정기회는 성원을 놓고 총무원장 인공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영우 스님 간에 설전이 벌어져 회의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총무원장의 선출방법을 바꾼 종헌 개정안과 임기와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종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제출됐기 때문이다. 파행으로 치달은 정기회는 사업계획안과 내년도 예산안 외에 종헌 종법 개정안은 다루지도 못했다. 이날 상정된 종헌종법 개정안은 총무원장 선출방법 변경, 단임 제한, 원로의원 선출권 변경 등이 담겨 있다. 이에 앞서 천태종 종회의(의장 도

산)는 11월 28일 단양 구인사에서 제87차 종의회 본회의를 열고 2011년 상월 조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성역화사업을 비롯한 신앙·연구사업에 86억 여 원을 비롯해 196억 2485만 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했다. 진각종 종의회(의장 혜명)도 12월 2일 서울 하월곡동 총인원에서 제371회 종의회를 열고 대한불교진각문화전승원 건립불사 회향 사업 예산을 포함한 총 146억 8700만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했다. 진각종은 2011년 신규 특별사업으로 진각문화전승원 개관기념 국제 학술대회 등을 진행한다. 조동섭·노덕현 기자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집중 5일완성
저자: 법화종현(정흥교) 큰스님 직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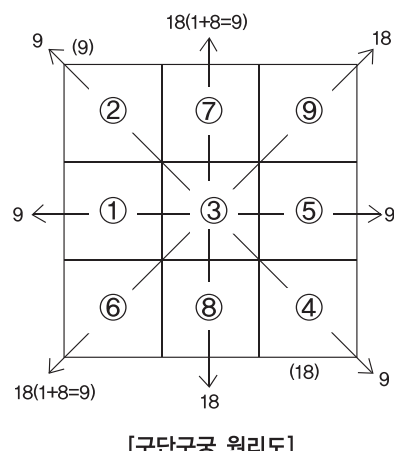
·전통불교조계종 중무원장(현)
·녹야선원장 ·불교학과교수
·구단구궁법 저자

강 의

목요일: 저녁 7시 - 9시
금·토요일: 오후 1시 - 5시
상담: 010-7415-0803

-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태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 사찰·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특전: 특별장학금 (50%) 특허출원번호: 40-2010-0009061
홈페이지 참조 - www.psa.or.kr [구단구궁법] 41-2010-0004261



*** 강의 일정표 ***

- ◆ 제1일 - 구단 구궁의 제법칙
- ◆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3일 - 부교재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 제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구단구궁을 수료하신분들께 감사드리오며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일정표에 맞추어서 재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학 과	기간 / 요일 / 시간	강 의 과 목	비 고
불 교 학 과	[기간 - 2년] 금요일: 저녁 7시 - 9시	·유식사상 ·화엄학 ·대승기신론 ·답사학	대학원과정 (학사이상)
불교교리학과	[기간 - 1년] 화요일: 오전 10시 - 12시 저녁 7시 - 9시	·사찰예절 ·근본교리 ·부처님생애 ·반야심경 ·포교방법론 ·초발심사경 ·천수경 ·금강경	포교사 법사
장례지도학과	[기간 - 6개월] 월요일: 오전 10시 - 12시 저녁 7시 - 9시	·관혼상제 ·장례식장경영론 ·장묘제도(법규) ·공중보건학 ·상당학 ·장례학 개론 ·불교상장례이해 ·실습	장례지도사 1,2급 불교장례지도사
다도예절학과	[기간 - 1년] 월요일: 저녁 7시 - 9시	·제다학(1,2,3,4) ·다구학 ·사찰다도법 ·차와선 ·차 문화사 ·차성분학	다도예절포교사
불교의식학과	[기간 - 6개월] 목요일: 오후 2시 - 5시	·기초 - 중급 - 고급 - 속성(실전) ·범음, 범패, 작법(바라 나비춤) ·중사이은 총사영만 점안의식 ·시달림 예수제	
풍 수 학 과	[기간 - 1년] 월,수요일: 저녁 7시 - 9시	·생활풍수 ·음택/양택 ·풍수학 개론 ·패설 ·방위학 ·부동산풍수 ·풍수인테리어 ·지리요결	풍수지리사
명 리 학 과	[기간 - 6개월] 화, 목,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 저녁 7시 - 9시	·생활역학 ·작명 ·사주명리학 ·관상학 ·궁합 ·택일 ·실전명리	명리심리상담사
이수명리학과	[기간 - 8주] 일요일: 오후 2시 - 6시	·이수명리학 ·명리36금수 ·적천수 ·12운수 ·간파명문 ·오지술	이수명리학회 회원증
타 로 학 과	[기간 - 4주] 금요일: 저녁 7시 - 9시	·메이저아르카나-22장 ·마이너아르카나-56장 ·실전타로학	타로카드 마스터사(1급)
구단구궁학과	[기간 - 5일] 목: 저녁 7시-9시 / 금: 오후 1시-5시	·구단구궁학개론 ·비법교재	한국구단구궁학회회원증